

다. 지식생산물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.3% 증가했다. 수출은 LCD, 화학제품, 선박 등이 줄며 0.3% 감소했으며 수입은 석탄 및 석유제품,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이 늘어 1.4% 증가했다.

2015년 4분기에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전기보다 증가세가 더욱 확대돼 1.4% 증가했다.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감소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 0.5%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부진하며 2.4% 감소했다. 지식생산물 투자는 정부 R&D 투자를 중심으로 0.7% 증가했다. 수출은 화학제품, 휴대폰 등이 늘어 2.1% 증가했으며, 수입은 석유 및 화학제품, 운송장비가 늘어 3.2% 증가했다.

원계열

2015년 1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2.4% 성장했다.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7.5%,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0.6% 각각 성장했고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.5% 감소했다.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운수 및 보관업, 금융 및 보험업, 사업서비스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3.0% 증가했다.

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.5%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큰 폭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5.8% 증가했다.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했으나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0.9% 증가했다.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1.9% 증가했다.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.5% 늘어났으며 수입은 2.1% 증가했다.

2015년 2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2.2% 성장했다.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4.0%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0.5% 성장했다.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늘어났음에도 토목건설이 감소하며 1.0% 감소했다.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운수 및 보관업, 금융 및 보험업,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2.9% 증가했다.

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.7%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5.1% 증가했다.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했으나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.0% 증가했다.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도 연구개발과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각각 늘며 0.9% 증가했다. 수출이 0.4% 감소한 반면 수입은 1.6% 증가했다.

2015년 3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2.8% 성장했다.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0.8%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1.5% 성장했다.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감소했음에도, 건물건설이 큰 폭 증가하며 4.8% 늘었다.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운수 및 보관업, 금융 및 보험업,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2.8% 증가했다.

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

전년 동기 대비 2.2%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큰 폭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6.7% 증가했다.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했으나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5.6% 증가했다.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연구개발과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각각 늘며 1.1% 증가했다. 수출은 0.5% 증가했고 수입은 3.1% 증가했다.

2015년 4분기에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3.1% 성장했다.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이 5.0%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2.4% 성장했다. 건설업은 7.5% 증가하며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됐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운수 및 보관업, 금융 및 보험업,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2.7% 증가했다.

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3.3% 증가했고 정부소비도 3.9% 증가했다.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.9%, 7.5% 증가했다.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.5%,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.1% 증가했다.

물가

■ 소비자물가 동향

〈소비자물가〉

2015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.7% 상승하면서 2014년에 이어 1% 내외의 저물가 흐름을 이어갔다.

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물은 2014년의 낮은 가격에 따른 저효과와 재배면적 감소, 가뭄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전년 대비 2.0% 상승했다.

공업제품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기타 공업제품이 13.0% 상승했으나 저유가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(전년 대비 -19.2%)하면서 전년 대비 0.2% 하락했다.

전기·수도·가스는 도시가스요금 인하,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7.4% 하락했다. 집세는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.5% 상승했다.

■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(단위: %)

	품목수	가중치	전년대비 등락률				
			2011	2012	2013	2014	2015
〈총지수〉	481	1000.0	4.0	2.2	1.3	1.3	0.7
- 상품	327	453.2	5.7	3.1	1.0	0.9	-0.7
(농축수산물)	71	77.6	9.2	3.1	-0.6	-2.7	2.0
(공업제품)	252	326.6	4.9	2.8	0.9	1.3	-0.2
(전기·수도·가스)	4	49.0	4.8	5.0	4.5	3.9	-7.4
- 서비스	154	546.8	2.7	1.4	1.5	1.6	1.8
(집세)	2.0	92.8	4.0	4.2	2.7	2.3	2.5
(공공서비스)	29	142.6	-0.4	0.5	0.7	0.8	1.2
(개인서비스)	123	311.4	3.7	1.1	1.6	1.7	1.9

주요 품목 연평균 등락률

(단위: %)

	상승 품목	하락 품목
농축수산물	쇠고기(국산7.3), 파(40.5), 마늘(23.3), 양파(33.9),)	복숭아(-15.2), 감(-14.5), 포도(-13.1), 귤(-11.4), 수박(-11.5)
공업제품	담배(국산83.7), 담배(수입)67.5, 가방(15.0), 혼합조미료(16.5),	휘발유(-17.3), 경유(-20.5), 등유(-26.2), LPG자동차용 -23.4 취사용 -15.2)
전기·수도·가스	상수도료(2.0)	도시가스(-15.8), 전기료(-1.7), 지역난방비(-0.1)
집세	전세(3.6), 월세(0.3)	
공공서비스	시내버스료(4.7), 외래진료비(2.0), 전철료(7.6)	부동산중개수수료(-1.9), 납입금(국공립대학교)-0.2)
개인서비스	학원비(중학생3.0, 고등학생 2.6), 공동주택관리비(3.9)	단체여행비(해외 -5.5, 국내 -6.8)

<생활물가 및 근원물가>

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전년 대비 0.2% 하락했다. 신선식품 물가의 경우 신선채소가 전년 대비 8.5%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2.1% 상승했다.

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대비 2.2%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.

생활물가 및 근원물가 등의 상승률 추이

(2012=100, 단위: %)

	품목수	가중치	전년대비 등락률						
		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생활물가	142	555.7	2.1	3.4	4.4	1.7	0.7	0.8	-0.2
(식품)	78	167.3	5.8	4.8	6.3	2.4	0.8	0.5	2.3
(식품이외)	64	388.4	0.4	2.7	3.5	1.5	0.7	1.0	-1.3
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	429	891.6	3.6	1.8	3.2	1.6	1.6	2.0	2.2
신선식품지수	51	40.7	7.6	21.3	6.3	5.8	-1.3	-9.3	2.1

<지역별 소비자물가>

16개 시·도별로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은 1.3%, 인천은 1.0%, 부산·대구·경기·경남·제주는 0.6~0.8%, 울산·광주·대전·충남은 0.2~0.5% 각각 상승했고 충북은 0.1% 하락했다.

특별시·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·시별로 전년과 비교하면 수원·성남·제주 등 10개 도시는 0.6~0.9%, 천안·의정부·강릉 등 7개 도시는 0.1~0.4% 각각 상승했고 광주·부산·충천 등 10개 도시는 0.1~0.4% 하락했다.

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(전년비, 단위: %)
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
1.3	0.8	0.7	1	0.3	0.2	0.5	0.7
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0	-0.1	0.2	0	0	0	0.6	0.6

■ 생산자물가 동향

2015년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4.0% 하락해 2013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.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공산품 가격과 전력·수도·가스 요금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기간별로 보면 1분기 -3.6%, 2분기 -3.6%, 3분기 -4.4%, 4분기 -4.4%로 하반기 이후 하락폭이 확대됐다.

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확대(2014년 0.7 → 2015년 2.3%)됐으며 공산품도 저유가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(-2.1 → -6.7%)됐다.

전력·가스·수도는 유가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로 하락 전환(5.3 → -7.9%)됐다. 서비스 요금도 상품가격 하락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(1.5 → 1.2%) 됐다.

생산자물가 상승률

(전년동기대비, 단위: %)

	(가중치)	2014	2015				
		연간	연간	1/4	2/4	3/4	4/4
생산자물가	<1,000.0>	-0.5	-4.0	-3.6	-3.6	-4.4	-4.4
상품	<665.1>	-1.4	-6.4	-5.8	-5.8	-6.9	-7.2
농·림·수산물	<32.3>	0.7	2.3	-0.2	3.7	4.2	1.6
공산품	<566.5>	-2.1	-6.7	-6.3	-5.9	-7.2	-7.5
전력·수도·가스	<64.0>	5.3	-7.9	-4.0	-8.9	-10.0	-8.7
서비스	<334.9>	1.5	1.2	1.4	1.3	1.1	1.2

■ 수출입물가 동향

2015년 중 수출물가(원화기준) 전년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했으나 수입물가는 하락폭이 확대됐다. 수출물가는 일반기계, 수송장비 등이 상승했으나 석탄·석유 및 화학제품이 하락하면서 연중 5.2% 하락했다.

수입물가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며 15.3% 하락했다.

수출입물가 동향

(전년대비, 단위: %)

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수출물가	-2.6	0.2	-2.4	-4.3	-6.0	-5.2
농·림·수산물	9.3	14.7	-2.8	-12.4	-6.0	-0.3
공산품	-2.6	0.2	-2.4	-4.2	-6.0	-5.2
수입물가	5.3	11.6	-0.7	-7.3	-7.5	-15.3
원자재	16.7	26.7	1.2	-7.8	-9.8	-34.0
중간재	1.8	6.1	-2.9	-7.8	-7.4	-8.5

■ 2015년 소비자물가 변동의 주요 특징

2015년 중 소비자물가는 2014년에 이어 연간 1% 내외의 저물가 흐름이 지속됐다. 수요 측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·곡물가격 하락 등 공급 측 하방요인이 두드러지며 저물가 흐름을 견인했다.

기간별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분기 중 0.6%(전년 동기 대비), 2분기 0.5%, 3분기 0.7%, 4분기 1.1% 상승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.

소비자물가 동향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, 전기·가스·수도 요금이 하락했고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.

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(전년동기대비, 단위: %)

	가중치	2012	2013	2014	2015				
					연간	1/4	2/4	3/4	4/4
소비자물가	<1,000.0>	2.2	1.3	1.3	0.7	0.6	0.5	0.7	1.1
농축수산물	<77.6>	3.1	-0.6	-2.7	2.0	0.3	2.1	2.9	2.6
(농산물)	<44.1>	8.8	-1.0	-10.0	1.2	-2.8	2.1	3.0	3.0
(축산물)	<22.1>	-7.4	-0.9	9.5	3.7	4.6	2.7	4.2	3.1
(수산물)	<11.3>	2.6	1.3	2.0	1.0	3.1	1.0	0.0	-0.1
공업제품	<326.6>	2.8	0.9	1.3	-0.2	-0.4	-0.3	-0.2	0.0
(석유류)	<56.7>	3.7	-3.3	-4.3	-19.2	-22.0	-19.1	-18.1	-17.3
전기·수도·가스	<49.0>	5.0	4.5	3.9	-7.4	-3.7	-8.0	-10.8	-7.1
집세	<92.8>	4.2	2.7	2.3	2.5	2.3	2.4	2.7	2.8
공공서비스	<142.6>	0.5	0.7	0.8	1.2	0.5	0.5	1.8	2.0
개인서비스	<311.4>	1.1	1.6	1.7	1.9	1.8	1.9	1.8	2.2

축산물, 수산물 가격은 상승폭은 줄어들었으나 농산물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농·축·수산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.0% 하락했다.

농산물은 2014년 낮은 가격에 따른 기저효과, 가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1.2% 상승했다. 축산물은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쇠고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3.7% 상승했고 수산물은 1.0% 상승했다.

공업제품의 경우 기타 공업제품, 섬유제품 가격 등이 상승했으나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공업제품 전체로는 전년 대비 0.2% 하락했다.

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17.3%, 경유 가격이 20.5%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19.2% 하락했다. 가공식품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2014년보다 낮은 1.3% 상승했다.

기타 공업제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13.0% 상승했다. 섬유제품의 경우 운동복, 점퍼 등의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으로 4.0% 상승률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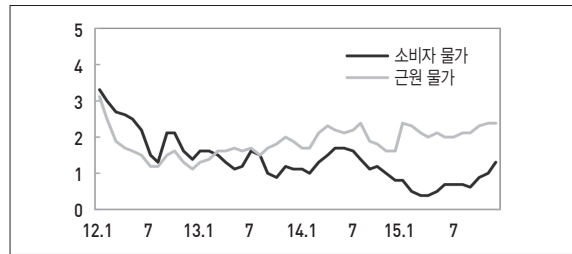
전기·수도·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세 차례 인하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7.4% 하락했으나 공공서비스는 하수도로, 택시 등 지방공공요금 상승으로 0.8% 상승했다. 집세는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2.5% 상승했다.

개인서비스의 경우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외식서비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.9% 상승했다.

외식비는 소고기 가격 상승, 소줏값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.3% 상승했고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납입금 등이 하락했으나 학원비 등이 상승해 전년 대비 1.7%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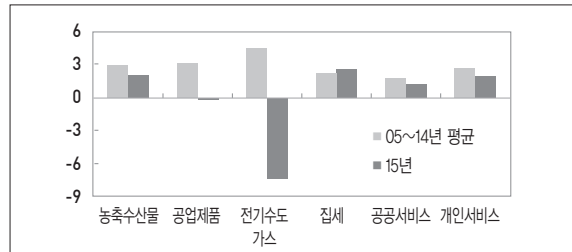
최근 물가 동향

(전년동월비, 단위: %)



부문별 물가상승률

(전년동월비, 단위: %p)



통화·금융

■ 통화

2015년 중 통화정책은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완화적인 기조를 보였다.

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된 경제 주체의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출 부진 등이 겹쳐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2.0%였던 기준금리를 3월, 6월 각각 0.25%p씩 두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.

또한 3월 중에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4조원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.

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2조원 증액하는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총 5조원 증액했다.

그밖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효과 제고 등을 위해 무역금융·설비투자·지방중소기업·신용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각각 0.25%p씩 인하했다.

한편 6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특별지원 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했으며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.